

九人會 研究

金 時 泰

目 次

- I 同인의 形成
 - 1. 文壇의 背景 2. 同인의 形成
- II 카프派의 是非
- III 文學의 方向과 諸 特性
 - 1. 鄭芝裕 2. 金起林 3. 李箱 4. 李泰俊 5. 朴泰遠·其他
- IV 文學史의 位置

I 同인의 形成

1. 文壇의 背景

九人會가 結成된 1933年은 어느모로 보나 過渡期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過渡期의 樣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事實로 指摘될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이 時期가 두 차례에 걸쳐서 進行된 카프盟員檢學事件의 中間地點에 該當한다는 點, 둘째, 이러한 外的狀況의 變化에 따라 카프派 뿐만 아니라 民族派까지 包含해서 이 땅의 이데올로기 文學이 더 이상 持續될 수 없는 限界에 부딪치고 있었다는 點, 따라서 이데올로기 文學의 다음 자리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文學 樣式으로 純粹文學의 基礎가 서서히 確立되고 있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1933年을 前後한 이 時期까지만 하더라도 카프派가 完全히 文壇을 掌握하고 있었으며, 純粹文學派는 그 一角에 放置되어 있었던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指摘은 어디까지나 文學의 成果보다는 文學의 背景이 되는 30年代 文壇의 現實의 諸 條件에 基礎하고 있는 것이지만, 發表機關의 數量에 있어서나 거기 參與한 文人들의 멤버 構成에 있어서나 카프派에 비하면 純粹文學派의 存在는 至極히 微微한 것에 지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참고 삼아서 그 當時에 發刊된 雜誌와 文人들의 分布圖를 보면 純粹文學運動의 첫 旗手가 된 詩文學派에 의해 「詩文學」 「文藝月刊」 「文學」 등의 一連의 雜誌가 發刊된 바 있지만 카프派의 活動舞臺가 된 「朝鮮之光」이나 「批判」 등에 비하면 社會的인 權威에 있어서나 誌齡에 있어서나 훨씬 떨

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兩陣營에 加擔했던 文人들의 活動相을 보아도 純粹文學側에 속하는 詩人이나 作家들은 30年代에 들어서면서 文壇에 발을 들여놓은 新人들로 아직 뚜렷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에 反해, 프로文學側은 이미 文壇에 確固한 位置를 確保하고 있었던 中堅 詩人이나 作家, 또는 批評家들로 더욱 活潑한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카프派는 1925년에 結成된 후 約 10餘年동안 文壇을 席卷하고 있었던 것이 事實이며, 純粹文學派는 이 期間동안 카프派에 대한 安티·테에제를 가지고 서서히 成熟된 世世代의 文人群으로 詩文學派의 形成과 함께 비로소 最初의 出帆을 보이고 九人會의 登場으로 本格的인 樣相을 드러낸 新興流派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文壇의 背景을 안고 出發된 것이 九人會였다.

그러면, 九人會가 30年代 文壇에 또 하나의 새로운 勢力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무슨 때문인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데올로기의 後退現象을 빚어낸 30年代 文壇의 政治的 狀況과 文學的 狀況을 잠깐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먼저 政治的 狀況부터 살펴보면, 30年代에 들어서면서 軍國主義 體制를 確立하기에 이른 日本은 對韓統治方法을 3.1運動 이후의 文化政策으로부터 그 이전의 武斷政策으로 還元시키는 結果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서 植民地인 韓國에서의 모든 文化活動은 그 政治性和 思想性を 去勢當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20年代와 區分되는 30年代의 特徵的인 한 現象으로 指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日帝의 彈壓이 具體的으로 反映된 事例로서 카프盟員檢學事件과 新幹會解散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면, 30年代 文學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의 後退現象은 外部的 壓力에 크게 原因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여기서 植民地的 狀況에 있어서의 韓國人的 應戰力의 限界를 보게 된다.

그러나 純粹文學運動은 文學의 外的 狀況이 되는 이러한 政治的 變動에도 크게 힘입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文學 自體의 새로운 反省과 實踐의 慾求에 더 많이 刺戟되고 있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反省과 實踐의 慾求란 이데올로기 文學의 두 軸을 形成해 온 카프派와 民族派의 根本的인 缺陷에 대한 反省과 거기서부터 새로운 文學의 出發을 企圖하고 있었던 純粹文學派의 意慾을 가리키는 것이다. 카프派가 내세운 프로文學이 지나친 政治主義와 目的主義的 公式性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의 硬直化現象을 가져 오고, 따라서 自身の 文學的 機能을 萎縮시키는 結果를 招來시켰다면, 民族主義文學 또한 素朴한 形態의 愛國心이나 獨立思想에 立脚한 이데올로기의 만네리즘에 빠진 나머지 創造的 想像力을 癱痺시키는 結果를 招來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文學과 民族主義文學은 그들이 서로 다른 思想的 立脚點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이데올로기 文學의 限界點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點에서는 모두 共通的인 運命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狀況속에서 제3의 脫出口를 찾으려는 意慾이 意識的이든 無意識的이든 文壇의 一角에서 提起되고 있었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새로운 意慾을 그대로 反映시켜 준 것이 九人會였다.

이런 뜻에서 九人會의 登場은 우리 文學의 史的 文脈에 깊게 關聯되어 있는 것임을 否定할 수 없다. 여기에, 九人會의 時代의 存在理由가 確保되고 있는 듯하다.

2. 同人의 形成

한때 九人會의 멤버였으며 그 產婆役을 맡은 바 있는 趙容萬은 틈틈이 옛 記憶을 더듬으면서 一連의 回顧談을 新聞, 雜誌 등에 揭載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의 回顧談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널리스트들의 要求에 따라 순간적으로 散漫한 過去의 破片들을 쫓아모아 본 것들이므로 意外에도 많은 誤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특히 年代 設定은 말할 必要도 없으며 其他 詳細한 事項들의 陣述에 이르러서는 전혀 엉뚱한 것들과 混同하거나 實際的인 事實과 背馳되는 答辯을 하고 있는 境遇를 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文章들은 自己中心의 記述되고 있기 때문에 客觀的인 文學現象이 主觀化되고 있다는 點도 看過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回顧談들은 現在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唯一한 資料로서의 意義를 지니게 된다. 九人會의 境遇에 더욱 그러하다. 九人會의 同人 形成과 發足趣旨 및 그들의 活動相 등에 대해 거기 加擔했던 한 當事者의 立場에서 直接的으로 傳達해 주는 文章은 解放後 최후까지 生存한 趙容萬 한 사람의 回顧談밖엔 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趙容萬의 回顧談들이 아무리 不完全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떠나서는 過去의 文學現象들을 돌이켜볼 만한 아무런 根據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小論에서는 그의 一連의 回顧談들을 一次的인 資料로 選擇하되 그것을 批判的으로 檢討하고 應用하는 가운데서 這間의 事情들을 推理해 보는 方法을 取하기로 했다.

그의 陣述을 빌면, 이 모임의 直接的인 動機가 된 첫 發議者는 李鍾鳴과 金幽影이었다고 한다. 當時 이 두 사람은 그가 勤務하고 있었던 每日申報의 固定執筆者로서 항상 붙어다녔을 뿐만 아니라 新聞社 編輯室에도 곧잘 드나들었다고 한다. 그 역시 이런 因緣으로 그들과 알게 되었으며 그래서 問題의 發議 現場에도 함께 參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늘 가던 李鍾鳴의 단골 술집에서 이야기가 처음 튀어 나왔다는 것도 이런 점에서 특히 共感할 수 있는 部分들이다. 모임에 대한 事前協議나 그 밖의 詳細한 計劃들은 發議者인 李·金 兩人에 의해 이미 作定된 바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 同人의 形成範圍와 그 對象에 이르기까지 具體的으로 論議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모임의 發端은 일단 여기서 찾아보아야 하겠다. 1)

그러면 어째서 카프派——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카프派 및 同伴作家——出身들에 의해 그

1) 「나와 九人會時代」(大韓日報 1969. 9. 23)

들의 그 때까지의 文學的 傾向과는 전혀 相反된 性格을 지닌 九人會와 같은 純粹文學 集團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갖게 되는 最初의 關心事 중의 하나이다. 趙容萬도 이에 대해서는 明確한 陣述을 기피하고 있지만, 그들이 轉向하게 된 그 當時의 狀況을 살펴볼 때 아직도 프로文學側이 완강하게 文壇의 中心勢力을 이루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時代의 흐름을 따라 徐徐히 崩壞의 過程을 밟고 있었다는 것을 暗暗裡에 가리켜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손쉽게 純粹文學側의 同調者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도 이런 점에서 示唆的인 一面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맨처음 同人의 候補 對象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 각 新聞社의 學藝部 關係者들이었는데, 이러한 對象選定은 意圖的인 配慮가 깊게 作用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 모임의 文學的인 條件과 함께 現實的인 條件이 同時에 감안되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이 學藝部 關係者를 최초의 同人 候補 對象으로 선택하게 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理由를 살펴보면 곧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純粹文學集團이 形成된다면 프로文學側에서 맹렬한 공격이 가해질텐데 이러한 공격에 맞서 直接的으로 反駁文을 쓴다든가 間接的인 對策으로 純粹文學論을 展開시킬려면 紙面의 確保가 干先 必要했기 때문이며, 2) 둘째, 그 當時에는 각 新聞社마다 固定執筆者와 같은 것이 形成되어 一鍾의 섹트意識을 助長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障壁을 무너뜨리고 同人活動을 보다 폭 넓게 展開시킬려면 어느 特定된 新聞에 局限될 것이 아니라 모든 紙面을 골고루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意圖的인 配慮에 따라 그들의 관계 신문사인 每日申報의 學藝部 일을 맡고 있었던 趙容萬을 제일 먼저 포섭하고, 그리고, 趙容萬을 통해 나머지 세 新聞의 學藝部 관계자들이 한 사람씩 포섭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즉, 東亞日報의 李無影과 朝鮮日報의 金起林, 中央日報의 李泰俊 등이 그들이다. 4)

그리고, 이 밖에도 鄭芝溶과 李孝石이 후보 대상으로 追加되었는데, 그 當時 이 두 사람은 위에 든 李泰俊이나 金起林과 더불어 <純粹文學家側에서 가장 矚望받는 작가·시인> 5) 이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中間役割을 맡게 된 趙容萬은 자신과 이전부터 親分關係를 맺어 온 鄭芝溶을 비롯해서 鄭芝溶—李泰俊—金起林의 連結을 보았으며, 여기에 李鍾鳴과 金幽影이 포함되어 모두 다섯 차례의 論議를 통해 九人會의 發足を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6) 이 五人會합이 바로 九人會의 發起人會 구실을 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2) 同上

3) 同上

4) 同上

5) 同上(大韓日報 1969. 9. 30)

6) 「그후 며칠 뒤에 지용으로 부터 李泰俊이 뜻이 있는 것 같으니 만나자는 것이었다. 지용과 같이

그런데, 九人會의 構成을 살피는 자리에서, 또 한 가지 留意해야 할 點은 이 모임의 첫 發議者가 된 李鍾鳴이나 金幽影의 쪽과 거기에 同調하고 나선 李泰俊이나 鄭芝溶 또는 金起柱의 쪽이 처음부터 見解上的 差異로 對立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不和의 樣相은 이 모임이 定式으로 發足된 그 以後에도 계속해서 高調되어 갔는데, 얼마 못 가서 發議者側이 모두 脫退하게 되었다는 것도 여기에 直接的인 原因이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見解上的 差異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측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 그것은 前者의 쪽이 同人會의 組織이나 運營에 있어 會則(또는 綱領) 같은 것도 만들고 會館 같은 것도 마련하는 등 積極的인 態勢를 취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後者의 쪽은 以上과 같은 번거로움을 피해 일종의 文人親睦團體나 俱樂部形式의 모임을 만들자는 消極的인 態度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었다는 點, 둘째, 카프派와의 關係에 있어서도 역시 前者의 쪽은 相對方의 攻擊을 豫想하고 그런 경우 直接的으로 맞서서 對抗하자는 積極論을 펴고 있었는데 反해 後者의 쪽에서는 그와 달리 消極的 傍觀論을 펴고 있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7) 이것은 兩側의 氣質的인 差異에서 오는 結果로서 現實的인 側面으로 비추어 보면 前者의 쪽이 보다 더 積極的인 態度를 反映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文學的인 側面에서 비추어 보면 모든 勝利는 오직 作品上的 成果에 依存한다고 믿고 있었던 當時 純粹文學側의 立場을 固守하고자 했던 後者의 쪽이 오히려 積極的인 態度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풀이될 수도 있다. 그리고, 後者의 쪽을 대변했던 李泰俊의 主張대로 이 모임의 構成이나 運營의 方向이 決定되었다는 것은 前者보다도 後者의 쪽이 이 모임의 基本性格에 보다 더 密着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고보면, 이 모임은 어떤 成分을 가진 어떤 사람들에 의해 맨처음 發議되고 企劃된 것이었던 간에 그런 것과는 관계 없이 오직 純粹文學 一念으로 作品活動을 해 온 李泰俊 및 同調者들을 中心으로 하고 主導된 것이었음을 아울러서 이해하게 된다. 이 點을 보다 더 뚜렷하게 밝혀 두기 위해 우리는 이 모임의 構成上的 問題를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考察은 무엇보다도 이 모임의 發足動機나 趣旨 및 文學的 方向등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李泰俊을 그가 근무하는 中央日報에서 만났더니 意外로 積極的이어서 自己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 빨리 李鍾鳴과 金幽影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急速히 일이 進行되어서 며칠 뒤에 다섯 사람이 만났다.

이렇게 五人會를 여러번 열어서 모든 것이 決定되었는데 이야기를 주로 한 사람은 李泰俊과 李鍾鳴이었다. J(同上)

7) 同上

이 모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同人들 相互間의 意見對立으로 처음부터 難産을 면치 못했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정식으로 發足된 것은 1933年 7月 下旬,⁸⁾ 「廣橋에 있는 간단한 洋食집」⁹⁾ 에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柳致眞을 제외한 모든 同人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참고 삼아서, 이 모임의 結成에 加擔했던 최초의 同人名單을 보면 李鍾鳴, 金幽影, 李泰俊, 金起林, 趙容萬, 李無影, 柳致眞, 鄭芝溶, 李孝石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柳致眞은 「권유에 못 이겨서 이름만 내세운것」¹⁰⁾ 이지 그 밖에는 이 모임과 아무런 관련도 맺고 있지 않다. 그는 創立總會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전혀 參席해 본 일이 없으며, 처음부터 이러한 모임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끼지 못 했다고 한다. 이것은 李孝石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무렵 鏡城農業中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그는 여름방학이 되자 서울에 들렀다가 金幽影등의 권유에 못 이겨서 創立總會에 한 번 들렀을 뿐이며,¹¹⁾ 여행을 마치고 다시 鏡城에 돌아간 다음 即刻的으로 脫退意思를 趙容萬에게 전해 왔었다고 하니,¹²⁾ 그의 立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그는 發足當時에 形式上 잠깐 이름만 빌려 주었던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으로는 九人會의 同人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九人會의 同人으로 봐야 한다면, 그것은 그가 九人會가 結成된 1933年을 前後해서 同伴者的 作家生活을 清算하고 純粹文學의 쪽으로 文學의 方向을 轉換시켰다는 것이 되겠는데, 이와 같은 그의 方向轉換 또한 九人會라는 하나의 集團의 카테고리를 통해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그의 個人的인 心境變化에 緣由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李無影도 무슨 까닭에선지는 모르지만 本格的인 同人活動을 벌일 사이도 없이 곧 脫退했으며,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趙容萬 또한 李鍾鳴, 金幽影의 發議에 따라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지만 李·金 兩인이 脫退하자 그 뒤를 밟고 李孝石, 柳致眞의 脫退 時期와 맞추어서 한

8) 同上(大韓日報 1969.10.2)

9) 同上

10) 「柳致眞은 이름만 걸었지 거의 나온 일이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드문 劇作家이기 때문에 各部門을 網羅하는 의미에서 그를 권유한 것인데 여러 사람들과 서툴러서 이야기도 맞지 않고 자연히 興味가…」(同上. 大韓日報 1969.10.7)

11) 「李孝石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맨 처음 會合때에 한번 出席하였을 뿐, 그 뒤로는 서울로 올라와도 會合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성질이 會合같은 데 나가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떠들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 (中略)… 作家는 個人 플레이로 좋은 작품을 써 내는 것이 本務이지 쓸데없이 패거리들 만들어가지고 떠드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그는 늘 말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카프側의 끈덕진 권유에 불구하고 그 테두리밖에서 同伴作家로 머물러 있었고 九人會에도 우리들의 권유에 못 이겨서 들었지 사실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同上)

12) 同上 (大韓日報 1969.10.2)

게 九人會를 떠나 버렸다고 한다.¹³⁾

이런 點으로 미루어보아 九人會의 結成에 실제로 참여한 바 있는 李鍾鳴, 金幽影, 趙容萬이나 形式的으로 이름만 내걸었던 李孝石, 柳致眞, 李無影 등을 가릴 것 없이 이 一連의 創設期 멤버들은 九人會가 하나의 文學集團으로 成長하고 새로운 文壇의 中必 勢力으로 構築되기 以前에 이미 떠나 버린 사람들이므로, 한때 이 모임을 거쳐 간 일이 있다는 그 以上の 意義를 갖지 못하며, 결국 이 모임을 主導한 멤버들은 그 밖의 다른 同人들에게서 찾을 수 밖엔 없다. 즉, 李泰俊과 鄭芝溶, 金起林 등이 그들이며, 특히 前二者가 이 모임의 主軸을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서 새로 加入되어 同人活動을 함께 한 사람으로 朴八場, 朴泰遠, 李箱, 金裕貞, 金煥泰 등을 들 수 있다.

朴八場은 李泰俊이 처음부터 加入시키고 싶었지만 李鍾鳴, 金幽影 등의 反對로 보류된 바 있으므로 李·金 兩人이 脫退하고 나자 자연스럽게 同人으로 加擔할 수 있었을 것이 豫想되며,¹⁴⁾ 朴泰遠 또한 李·金 兩人的 脫退를 앞두고 趙容萬의 소개로 李泰俊을 거쳐 加擔하게 되었다고 하며,¹⁵⁾ 李箱은 鄭芝溶을 통해 「카톨릭青年」誌에서 찍았던 詩人이므로 鄭芝溶의 추천으로 九人會에 加擔된 것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¹⁶⁾ 그리고, 金裕貞과 金煥泰는 九人會의 機關誌 「詩와 小說」이 창간될 무렵해서 뒤늦게나마 이 모임에 가담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 모임에 들어 오기 이전부터 同人들과 親分이 두터웠던 것으로 되어 있다.¹⁷⁾

13) 「鏡城에 있는 李孝石이 자꾸이름을 빼달라고 독촉이 와서 나는 할 수 없이 李孝石과 柳致眞과 나의 脫退를 통고하였다. (同上, 大韓日報 1969.10.7)

「나로 말하면 李鍾鳴, 金幽影이 그만둘 때에 같이 그만 두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 사람이 메를 지어서 그만두면 무슨 당과싸움이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좀 머물러 있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李孝石, 柳致眞이 또 그만두는 판에는 그들을 추천한 책임도 있고 나 혼자 외톨로 남아 있기도 싫어서 이번에는 같이 그만두기로 하였다.」(同上, 大韓日報 1969.10.9)

14) 「李泰俊이 열심히 會員을 만들자고 하였지만, 주로 李鍾鳴이 말을 안 들어서 宿題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同上, 大韓日報 1969.10.7)

15) 「내 소개로 처음 李泰俊을 만나서 그 익살스런 말투로 어떻게 웃겼는지 누가 朴을 面對해 놓고 「말씀씨가 처렁처렁한 글썽글썽같이 엔간치 많으시구료」하고 웃던 것이 지금도 생각난다. 이리하여 朴泰遠이 九人會에 들어 온 뒤로…」(同上)

16) 「그는 1933년에 지용의 知遇를 얻어서 지용이 主宰하는 잡지 「카톨릭青年」에 每月 그 特異한 形式을 가진 詩를 발표하였다. 이듬해 1934년에 九人會에 入會하고 나서…」(同上, 大韓日報 1969.10.2)

위의 「카톨릭青年」誌에는 「一九三三. 六. 一」 「꽃나무」 「이런 詩」 ((1933年 7月號 掲載分) 등을 비롯하여 10餘編의 作品이 발표된 바 있다.

17) 「會員을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限에 맞아 보고자 꽤 오래전부터 말이 있어 왔는데 그도 또 자연 허명무실해 오던차에 이번 機會에 金裕貞, 金煥泰 두 군을 맞았으니 꽤 좋다. 두 군은 전부터 會員들과 친분이 없지 않던 터에 잘 됐다.」(李箱, 「編輯後記」, 「詩와 小說」 1936.3)

다음으로 九人會의 活動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겉으로 보면, 九人會는 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것 같지 않다. 고작해야 그들은 몇 차례의 作品合評會와 文學講演會, 그리고 菊版 100餘面の 알뜰한 機關誌「詩와 小說」을, 그것도 1회에 한해서 발간한 바 있다. 이것이 그들의 集團의인 文學活動을 보여 준 總量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은 集團的인 活動은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個人的인 活動에 있어서는 30年代에 군림했던 어느 流派의 것보다도 많은 分量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九人會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當時의 四大新聞 學藝面은 물론 그밖에 群小 雜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特定의 機關誌를 발간하거나 그에 準하는 作業들을 꾸미지 않더라도 作品發表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點, 그리고 純粹文學을 표방했던 이 모임은 카프派와는 달리 政治性을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集團的인 活動보다는 個人的인 活動에 비교적 더 많이 기울어질 수 있는 性格을 지녔다는 點 등을 여기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아 九人會의 活動은 결코 빈약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趙容萬의 陳述은 이런 점에서 일단 是正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九人會는 이렇다고 特記할만한 文壇的 足蹟이라든지 話題를 남겨 놓지 못 하였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야 억지 足蹟을 찾는다면 「詩와 小說」이라는 表題로 會의 機關誌를 한번 낸 일이 있고 또 話題거리로서는 發會直後에 講演會를 한번 가졌었는데, 그때 自作詩를 朗讀하게 된 지용이 自信이 있다고 버티더니 登壇直前に 그만 겁이 나서 藥酒를 대포로 드리고 들어와서 비로소 기운을 내가지고 詩를 朗讀하여 큰 喝采를 받았던 것을 들 수 있는 程度이지만, 이까지 것이 무어 대수로울 것이 없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¹⁸⁾

問題는 그들의 個人的인 活動을 통해 集團的인 意圖를 어느만큼 效果的으로 傳達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에 있다. 그렇지만, 그것도 큰 問題는 되지 않는다. 當時의 誌面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文學 이외의 綜合的 性格을 띤 것들이라 하더라도 文學에 대해 스페이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大衆文學과 함께 本格文學도——비록 그것이 아무리 高度의 文學的 教養을 要求하고, 따라서, 一般大衆에게는 잘 읽히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限 많이 提供해 주고 있었다는 點, 그런 以上 文壇圈內의 範圍를 넘어서지 못 했던 同人誌들보다는 社會的인 影響力을 더 많이 갖고 있었던 一般新聞이나 綜合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文學的 成果를 더 振幅있게 거둘 수 있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同人誌들이 文壇進出이나 地位確保의 方便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고서도 九人會에 加入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紙(誌)面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九人會만이 갖고 있었던 唯一한 一面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18) 「九人會의 記憶」(『現代文學』1957.1.)

이런 모든 점들을 綜合해 볼 때, 「詩와 小說」이 뒤늦게나마 한때 發刊된 바 있다는 것은 李箱, 朴泰遠 등 新進들의 文學的인 情熱을 部分的으로 드러내 보여 준 것에 불과하며, 이 雜誌가 創刊號에 그쳤다는가, 規模에 있어 그것이 너무 貧弱했다는가, 그 밖에는 機關誌를 낸 事實이 없었다든가, 하는 것은 九人會의 全體的인 活動에 비추어 볼 때 過少評價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되지 못한다.

II 카프派의 是非

九人會가 結成되자 이에 대한 即刻的인 反應을 보인 것은 카프派였다. 이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못 된다. 자신의 文學的인 方向이나 態度 및 基本的인 性格에 背馳된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文學集團이 形成되면 어김 없이 反撥, 또는 공격의 화살을 퍼부어 온 카프派의 好戰的인 經歷에 비추어볼 때 九人會 또한 그들의 공격목표에서 例外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들은 그때까지 카프派에 의해 敵對關係에 놓여 온 一連의 文學集團들, 이를테면, 國民文學派나 海外文學派, 詩文學派 등과 마찬가지로 九人會 또한 그 發足趣旨나 文學的 動向에 있어서는 물론 同人들의 構成 成分에 이르기까지 카프派와는 전혀 다른 異質的인 要素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九人會에 대한 카프派의 反應은 그 以前의 國民文學派나 海外文學派 및 詩文學派 등에 대한 그들의 反應과는 전혀 다른 樣相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일단 區分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原因이 介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九人會가 結成된 이 時期는 카프側에서 볼 때 自體分裂 내지 渦解의 過程을 밟고 있었던 때이므로 그만큼 그들의 論理가 흔들리고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從前에는 一絲不亂하게 自體內의 意見을 綜合 또는 調整하면서 反對派에 대해 積極的인 對決의 姿勢를 보여 온 카프派가 이 時期에 와서 分裂을 일으키고 스스로 論理的인 混亂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政治的인 外部狀況에 있어서나 文學 자체의 諸條件에 있어서나 그들이 결국 더 나아갈 수 없는 最後의 限界에 부딪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카프派가 이와 같은 自體內의 分裂을 일으키고 轉向軸과 非轉向軸이라는 새로운 論理的 矛盾에 봉착하게 되자 그들의 對外鬭爭은 內面化되어 더욱 더 심각성을 띠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무렵에 展開된 카프派의 純粹文學論議는 對外的인 自己主張보다는 對內的인 자기변호의 性格을 더 많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非轉向軸 批評家들에 의한 九人會의 批判이 더욱 더 極烈化될 수 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은 쉬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셋째, 이와 같은 현상은 카프派에서 純粹文學派로 文壇의 主導權이 移行되고 있었던 當時의 過度期的 文壇狀況과도 긴밀한 함수關係를 맺고 있

있던 것으로 推定된다. 그것은, 이 무렵의 純粹文學派를 대변했던 九人會側이 카프派에 대해 一言半句의 批判도 없이 방관자적 態度를 취하고 있었으며 더더구나 이렇다할 만한 集團의 行動提示도 없었음에 불구하고 無條件 相對應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事事件件 트집을 잡고 있었던 카프派의 처사에서도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九人會側에서는 이러한 카프派의 是非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오직 作品製作으로 自身の 地位를 確保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30年代 中半에 들어서면서 政治的 社會的 및 文壇의 여건이 이미 純粹文學 쪽에 유리하게 주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時期에 발표된 白鐵의 「邪惡한 藝苑의 霧圍氣」(東亞日報 1933. 9. 29~10. 1), 洪堯民의 「一九三四年과 朝鮮文壇」(東亞日報 1934. 1. 1~1. 10), 金斗鎔의 「九人會에 對한 批判」(東亞日報 1935. 7. 28~8. 1), 朴勝樞의 「文藝와 政治」(東亞日報 1935. 6. 5), 申孤松의 「文壇時感」(朝鮮中央日報 1935. 11. 16~17) 등은 위와 같은 側面에서 볼 때 當時의 文壇動向은 물론 九人會에 對한 카프派의 是非曲折을 理解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重要的 資料로서 選擇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一連의 文章들을 더듬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개의 側面으로 要約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白鐵의 立場을 취한 否定的 側面이고, 또 하나는 洪堯民의 立場을 취한 肯定的인 側面이다. 이 자리에서는 위의 두 批評家의 立場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九人會에 對한 카프派의 反應을 대충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白鐵의 경우부터 살펴보면,

...나는 이 「九人會」를 가리켜서 「無意志派」 내지 「自由主義前派」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九人會」를 命名하고 있는 것은 나의 單純한 好奇心的 愛名이 아닌 것은勿論이다. 벌써 指摘한 바와 같이 現實的으로 存在할 아무 積極的 意義를 갖고 있지 못한 「九人會」는 方向을 잃고 있는 存在이며, 따라서 그 無意味한 存在는 그들의 一時的 흥분이없어지자 그대로 自然消滅이 되기 쉽다. 그러한 限에서 그들은 「無意志派」이다. 그리고, 그것이 即時 消滅되지 않는 限에 있어는 그것은 어떤 것의 前派가 아니면 아니된다.¹⁹⁾

그는 九人會를 「無意志派」(또는 「自由主義前派」)라고 規定한 다음, 「現實的으로 存在할 아무 積極的 意義를 갖고 있지 못한 九人會는 意志와 方向을 잃고 있는 存在」라는 이데올로기 一邊倒의 極端論에 到達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文學을 政治的인 目的 達成의 手段이나 方法으로 여겨 온 카프派의 종래의 觀點을 그대로 固執함으로써 名分論의 立場을 취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그의 名分論은 九人會의 發足趣旨와 構成成分 및 그 存在理由에 대해서도 否定的인 結論에 到達하게 되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참고 삼아서 그 一節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白鐵, 「邪惡한 藝苑의 霧圍氣」(東亞日報 1933. 10. 1)

① 그들 自身이 發表한「九人會」의 主旨를 보면 서로 親睦을 圖謀하는 것이 첫째 條件이고 讀書과 研究를 하는 것이 둘째 條目으로 되어 있는 듯 하다. 「九人會」와 같은 散漫한 성질을 가진 會合에서 天下를 攻取하기보다 어려운 文學의 事業이 研究되리라고는 本來부터 믿을 수 없거니와 가사로 이 會合에서 一定한 讀書과 研究가 된다고 假定해도 그것만 으로서는 九人會가 現實적으로 存在될 아무 意義가 없는 것이다. 過去의 日本 新興藝術派의 前身으로서의「十三人俱樂部」等에 比하여도 一層 空虛한 內容만 갖고 있는 이 九人會는 結局에 있어 無意味하고 方向을 잃은 存在에 不遇한 것이다.²⁰⁾

② 九人會! 처음 구름과 그를 構成한 使徒들의 이름이 發表되었을 때에 나는 여러 가지 意味로서 될 수 있으면 一定한 意義를 붙여서 그것을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구름의 生存은 意義있는 內容 此方面을 가진 祝福된 存在는 아니었다.

첫째로 이 그룹은 過去의 自然主義派 寫實主義派, 理想主義 等の 時代的 潮流를 代表하고 있는 意味의 存在는 本來부터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은 部分的으로 藝術的 傾向을 같이 하고 있는 藝術家의 一定한 存在, 例를 들면 未來派, 立體派, 超現實主義派, 그리고 日本의 新興藝術派같은 內容을 가진 그룹도 아니었다. 왜 이러냐 하면, 나는 이 그룹의 構成멤버를 볼 때에 李孝石氏와 李泰俊氏 사이에도 아무 共通의 傾向을 發見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서 金起林氏의 詩的傾向을 鄭芝溶氏의 카톨릭詩와 合致시킬 수도 없으니까...²¹⁾

以上 두 引用文을 살펴 보면, 前者에서는 主로 九人會의 發足趣旨에 대하여, 後者에서는 그 것의 流派로서의 成立 與否에 대하여 각각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인 白鐵의 指摘들은 카프派流의 先入觀念에 사로잡힌 나머지 九人會에 대해 無條件 拒否, 또는 排擊하려는 底意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流派로서의 成立與否를 묻고 있는 後者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李孝石과 李泰俊, 金起林과 鄭芝溶을 묶어서 同一流派도 認定할 수 없다고 본 白鐵의 主張은 아무래도 無理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의 말마따나 「未來派」나 「立體派」나 하는 外國의 文學流派에 비교해 보면 위에 든 作家와 詩人들은 各各 色다른 文學적 傾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同一한 流派로서 認定하기 어려울런지 모른다. 그렇지만, 同一한 流派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全적으로 동일한 傾向이나 特性을 지녀야 할 까닭은 없다. 문제는 그들이 어떤 점에서 서로 共通의 一面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카프派가 社會主義的 理想에 立脚하여 文學의 社會性이나 政治性을 強調하고 있는데 反해 九人會의 멤버들이 그러한 社會性이나 政治性을 배격하고 그 대신에 文學의 藝術性을 強調하기에 이르렀다면, 카프側에서는 이와 같은 純粹文學的 立場에 대해서도 그것의 存在理由를 일단 承認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限 카프側의 批判은 결국 一方的인 先入觀念의 支配, 또는 그 我執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20) 同上

21) 同上

대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시 言及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로 한다.

反面, 洪曉民은 文學의 外的 狀況이 되는 政治的 社會的 變化를 銳意注視함으로써 九人會의 存在理由를 部分的으로나마 그러나 肯定하고 있다는 點에서 情勢論의 立場을 취하고 있음을 본다.

或者(白鐵...필자註)는「九人會」에 對하여 前期 藝術無意志派라고 하거니와 吾人은「九人會」가 그러한 無意志派라고만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反動時代에 極히 中樞의 任務를 다 할 그러한 同伴者의 그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九人會」는 白鐵君이 規定하는 바와 같은 前期 藝術에 屬하는 無意志派는 아닌 것이다.

吾人이 보는 바「九人會」는 새로운 反動時代에 들어 온 具體的 表現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反動時代의 第二期의 必然의 理勢 밑에서 產出되는 새로운 反動時代의 前衛派라고 보고 싶은 것이다. 22)

洪曉民의 主張을 빌면, 1930年을 基點으로 하고 出發된「새로운 反動時代」의 文學, 즉 純粹文學運動은 1933年에 이르러 그 第一期를 마치고 第二期로 접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새로운 文壇의 動向을 그대로 업고 나온 것이 九人會라는 말이 된다. 23) 이러한 角度에서 본다면, 「九人會」는 새로운 反動時代에 들어 온 具體的 表現으로 또는 組織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反動時代의 前衛派」로서 時代의 當爲性을 獲得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純粹文學運動의 底邊擴大에 임하고 있는 九人會를 가리켜서「現實적으로 存在할 아무 積極的 意義를 갖고 있지 못한...無意味한 存在」²⁴⁾ 즉「無意志派」²⁵⁾로 規定하고 그것의 解體를²⁶⁾ 要求한 白鐵의 主張은 時代의 흐름을 意識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맹목적인 見解라고 反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九人會의 發足趣旨와 存在理由에 대해서도 洪曉民은 部分的으로나마 그러나 明白히 承認하는 態度를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洪曉民은 白鐵과 전혀 相反하는 立場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引用에서만 보더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理解를 돕

22) 洪曉民, 「一九三四年과 朝鮮文壇」(東亞日報 1934. 1. 10)

23) 「一九三〇년부터一九三三년에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反動時代는 그 第一期를 견고하다고 吾人은 보고자 하거니와一九三三年 末에 이르러 完全히 朝鮮文壇에도 이 새로운 反動時代는 좀더 深刻하여 그 第一期의 過程에서 第二期過程으로 옮겨 온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냐 하면 카톨릭文學의 據頭도 한 개의 그러한 現象이거니와 그外 九人會 같은 것과 또한 朝鮮文學이라는 그곳에 文學現象으로 보아서도 그러한 것이다.」

(洪曉民)「一九三四年과 朝鮮文壇」, 東亞日報 1934. 1. 4)

24) 白鐵, 「邪惡한 藝苑의 霧圍氣」(東亞日報 1933. 10. 1)

25) 同上

26) 同上

기 위해 引用을 더 追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시 現今의 朝鮮 文壇 情勢를 要約해 한말로 치워 버린다면 年前까지도 「海外文學派」라는 一部 局限된 指稱 아래 度外視되는 이 一派가 一九三〇年 以降 完全히 브르조아文壇을 繼承하기에 餘念이 없으며 아울러 그렇게 되어가고… (中略) …「九人會」이것은 이 새로운 反動時代에 가장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同伴者流의 文藝運動으로 다음 모멘트를 위하여 커다란 役割은 못 할지라도 없어서는 아니 될만한 그러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요.²⁷

叙上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白·洪 兩人的 見解差는 個人的인 것이기 前에 一九般的인 性格을 띠고 있는 것으로서 轉向論의 槓頭와 함께 急速度로 渦解되기 시작한 카프派의 分裂相 兩端의 立證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九人會가 結成된 1933년까지만 하더라도 카프派가 文壇의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카프組織이 解體된 1935年 以後에도 그 잔당들은 文壇의 第二線에 물러앉아서 純粹文學側과 지속적으로 對決하는 姿勢를 취했기 때문에 白鐵流의 名分論이 當時로서는 카프側의 一般的인 立場을 더 많이 代表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리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文章들은 이러한 카프側의 立場을 혹은 과격하게, 혹은 自家宣傳格으로 피력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일단 주목할만 하다.

① 近者에 純粹文學 云云의 用語와 主唱者가 盛行되고, 文藝復興의 소리가 들리고, 藝術의 獨自性을 부르짖는 者 續出하고, 文藝와 政治와의 사이에 鐵壁을 쌓기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으나 果然 이러한 現象과 傾向은 똑바른 社會的 歷史的 正當性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이와 正反對性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²⁸⁾

② 그러나 情勢가 困難하여지고, 프로레타리아 文學이 一層 沈滯하게 되는 때에 그들은 「九人會」에 모이게 되었다. 그들의 結成의 根據는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明確치 않은 곳에 있었고 또한 文學의 藝術性 擁護와 主張에 있어서는 一致한 點에 있다.²⁹⁾

그러나 以上과 같은 카프側의 비난 공격에 대하여 九人會側에서는 단 한번도 應答해 본 사실이 없다. 이것은 「詩와 小說」의 後記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³⁰⁾ 와 같이 作品의 制作 그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最大의 課題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카프側과는 전혀 性格을 달리했던 九人會의 文學的 理念과 그 特性들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7) 洪曉民, 「一九三四년과 朝鮮文壇」(東亞日報 1934. 1. 10)

28) 朴勝極, 「文藝와 政治」(東亞日報 1934. 6. 5)

29) 金斗鎔, 「九人會에 대한 批判」(東亞日報 1935. 7. 28)

30) 「九人會처럼 탈탈할 수 참 없다. 그러나 한번도 대꾸를 한 일이 없는 것은 말하자면 그런 대꾸 일일이 하느니 할 일이 따로 많으니까다. 일후라도 默默부담채 지날 게다. (李箱, 「編輯後記」 「詩와 小說」 1936. 3)

Ⅲ 文學的 方向과 諸 特性

前述한 바와 같이 九人會는 카프派와 對立했던 30年代 純粹文學系列의 代表的 集團으로 그들의 文學的 方向도 이러한 純粹文學的 基礎 위에서 찾아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들은 以上과 같은 자신의 文學的 方向이나 理念을 처음부터 表面的으로 내세웠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構次成分이나 作品活動이 그들 자신의 文學的 方向이나 理念을 간접적으로 立證해 주는 것이 되었다고 할까. 이에 대해서는 이 모임의 同人形成을 살피는 자리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로 한다.

그러면, 九人會의 이와 같은 文學的 方向이나 理念이 30年代 文壇에 다시 새로운 主流形成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다면 그것은 무슨 때문인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九人會를 中心으로 집결했던 30年代의 進歩的 藝術主義者들이 近代文學 初期에 활약했던 20年代의 曠은 藝術主義者들과는 다른 새로운 文學的 教養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오해를 푸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白鐵은 九人會 會員들을 가리켜서 「無意志派 내지 自由主義前派」³¹⁾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分明히 오해다. 여기서 「無意志派」라고 함은 社會的 信念이나 改造의 意志가 없는 非行動的인 文學人들의 集結體라는 말이 될 것이며, 「自由主義前派」라 함은 이러한 非行動的인 文學人들은 社會主義文學人들이 항상 敵對視해 온 부르조아의 文學世界로 다시 復歸하는 結果를 가져 왔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白鐵의 이와 같은 지적은 九人會의 文學的 方向이나 理念을 故意的으로 歪曲시키려는 底意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社會主義者들이 「階級」이라는 觀念을 자신의 이데올로기 위에 얹어놓고 있었던 것처럼 「藝術」이라는 觀念을 그들 자신의 共通性인 文學理念으로 信奉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過去의 文學世界로 復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문학적 기초를 토대로 해서 다시 새로운 文學世界를 건설하는 데에 目標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鄭芝溶과 金起林으로 代表되는 모더니즘의 詩世界라든가 李泰俊 및 朴泰遠 등의 小說에 主로 나타나는 세련된 文章表現과 小說美學 등은 九人會의 이와 같은 藝術的 志向點을 端的으로 立證해 주는 것임과 同時에 비로소 이 땅에 現代文學의 기초를 마련해 준 重要的 契機가 되었다는 點에서 그들의 文學史的 意義를 한층 높여 준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九人會 會員들이 각각 지니고 있었던 이러한 文學的 特性들은 그 當時로서는 가장 前衛的인 性格을 띤 것으로서 새로운 意味에서의 藝術的 技兩과 意慾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카프派 文人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큰 直接的인 危脅의 對象이 되었음을 看

31) 「邪惡한 藝術의 霧圍氣」(東亞日報 1933. 10. 1)

過할 수 없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의 오해를 풀고 나가야 할 의무를 느낀다. 카프側에서 九人會를 비판, 공격할 때에 상투적으로 늘 내세웠던 것이 「九人會는 各會員마다 相反된 文學的 傾向이나 特性을 갖고 있었으므로 流派로서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카프側의 批判이 正當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 역시 카프側의 偏狹된 主張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九人會의 文學的 方向이나 理念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은 여러가지 傾向을 個別的으로 指向하거나 그중 어느 하나만을 固執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傾向을 總括함으로써 그 위에 文學다운 文學, 즉 가치있는 文學을 이룩하는 데에 最終目標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九人會의 文學的 方向은 카프派의 目的主義的 文學觀에 對抗하여 純粹文學의 기초를 確立하는 데 앞장섰던 詩文學派의 課業을 繼承하고 그것을 보다 具體的이며 多樣하게 전개시켜 나아가는 데에 있었으며 純粹文學系列의 이러한 基本 方向을 具現시켜 준 여러가지 文學的 特性으로 모더니즘이니 新心理主義니 하는 諸 傾向을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鄭芝溶의 경우

鄭芝溶은 1925年 6月 京都留學生들에 의해 發刊된 會誌 「學潮」와 함께 출발한 詩人이다. 그는 거기에 「카페·프랑스」外 數篇의 作品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후 계속해서 「新民」 「朝鮮之光」 등의 誌面을 통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그의 初期 詩篇들은 同時期 詩人들이 追從할 수 없는 뛰어난 솜씨를 보여 준 것으로서 그를 當代의 가장 우수한 詩人으로 만들어 주는 데에 손색이 없었다. 그러므로 詩人으로서의 그의 能力은 20年代 後半期에 이미 평가될 수 있었던 것이며, 1930年 「詩文學」誌의 創刊과 함께 거기에 再收錄된 그의 一聯의 作品들은³²⁾ 그러한 과거의 業績을 再確認해 준 것에 불과하다.

鄭芝溶의 初期 作品들을 보면 이미지즘의 傾向이 짙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外國詩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그가 英文科 出身이라는 點, 그리고 그가 留學한 當時의 日本 文壇에서는 新感覺派가 全盛期를 이루고 있었다는 點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그는 3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初期詩의 경향에 대해 회의를 품고 거기서부터 脫出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그의 第二期詩가 놓인다. 九人會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 무렵의 作品들은

32) 「詩文學」誌 創刊號에 게재된 作品들만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발표된 것을 재수록한 것들이다.

참고 삼아서 과거의 誌面과 發表年代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 ① 일은 봄 아침(「新民」1927.2)
- ② Dahlia(「新民」1926.11)
- ③ 船醉(「學潮」1927.7)

모두이 第二期詩에 해당한다.

第一期詩의 特徵이 即物的 이미지의 描寫에 있었다면 第二期詩의 특징은 形而上學的 이미지의 探究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第二期詩는 以上과 같은 詩世界의 變遷으로 말미암아 많은 探索과 彷徨의 代價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 쓴 그의 一連의 宗教詩篇들이나 그밖의 都市風 作品들은 그러므로 그 作品性에 있어 初期詩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現象은 詩人으로서의 그의 個人的인 才能은 물론 教養의 幅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의 本領은 아무래도 이미지즘의 基礎 위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은 「詩와 小說」에 발표된 作品 「流線型哀想」의 1節이다.

생김생김이 피아노보담 낫다.

얼마나 뛰어난 燕尾服嗎시나.

산뜻한 이 紳士들 아스팔트 위로 곤돌란듯
물고들 다니길래 하도 딱하길래 하로 칭해왔다.

손에 맞는 풀이 길이 아조 들었다.
열고보니 허술히도 半音키 하나가 남아있더라

굴창 練習을 시켜도 이진 첼로판에서 뱀 소리로구나.
舞臺로 내보낼 생각을 아예 아니 했다. 33)

이 作品을 대할 때 우리는 部分的으로나마 詩人의 銳敏한 感受性과 言語的 形象化의 能力을 發見한다. 그렇지만 全禮的인 文脈을 놓고 보면 이 作品처럼 散漫한 印象을 주는 것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作者는 都市文明에 대한 자신의 洞察力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現實意識은 오히려 그의 詩意識을 分裂시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참고 삼아서 이 時期에 발표된 作品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으로 「바다」를 들면, 여기서도 결국 詩的 成果를 거두고 있는 部分은 이미지즘 手法으로 바다라는 한 事物의 屬性에 대한 섬세한 묘사를 보여 준 다음과 같은 3聯에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다는 뽀뽀이 / 달아 날려고 했다. // 푸른 도마뱀 떼처럼 / 재재 발렸다. // 꼬리가 이루 / 잡히지 않았다」 34) 詩集 「白鹿潭」으로 대표되는 그의 第 3期詩가 初期詩의 鄉土的 抒情과 그것의 感覺의 把握 및 形象化의 길로 다시 캄백하고자 하는 意慾을 보여 주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꽤 示唆的이다.

33) 「詩와 小說」(1936.3) p. 10

34) 「詩苑」(1935.12) p. 2

2. 金起林의 경우

金起林은 詩論을 겸한 詩人이다. 이것은 그가 다른 모더니스트 詩人들과는 달리 理論的인 背景을 가지고 있었던 詩人임을 뜻한다. 우리는 여기서 金起林의 詩와 詩論이 비록 試圖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文學史上 모더니즘 詩運動을 領導했던 최초의 리더로서의 그의 面貌를 읽을 수 있다. 다음은 그의 代表作으로 널리 알려진 長詩「氣象圖」의 1節이다.

산뿔이 소름친다.
바다가 몸부림친다.
휘청거리는 빌딩의 긴 허리
비틀거리는 電柱의 미끈한 다리
座學하는 亞細亞의 머리 위에 흩어지는 電波의 噴水, 噴水.³⁵⁾

이것은 颶風의 感覺을 빌어 中國文明의 崩壞相을 묘사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金起林의 詩에 作用하고 있는 主知的 作詩方法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作詩方法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側面으로 要約될 수 있다. 思想의 感覺의 把握과 感傷性的의 克服이 그것이다. 여기서 「思想의 感覺의 把握」이란 말은 T.S. 엘리엇의 主張으로 감각 속에 知的 要素를 함축 시킴으로써 그 實在를 하나의 全體로서 파악케 하려는 作詩方法을 가리킨다. 위의 引用作品에 사용되고 있는 多重的의 이미지들은 이러한 作詩方法과 그대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서 金起林의 경우 詩의 散文化 내지 繪畫化의 主張으로 翻案되고 있음을 본다.

우스운 일은 많은 사람들은 韻律이야말로 詩의 本質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이다. 世上의 수없는 詩의 試作者들은 韻律을 밟아서 말을 羅列함으로써 詩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世上에는 怪常한 亡靈들이 韻律의 制服을 입고는 詩라고 自稱하면서 大道를 橫行한다. 그때 詩神은 아마도 그들의 부엌에서 슬프게 울린지 모른다. 한편으로, 새로운 詩의 精神은 어느새 이 韻律이라는 禮服이 그들의 몸에는 궁색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혹은 結婚式에는 써도 괜찮을지 모르나 街頭에서, 事務所에서, 農園에서, 工場에서, 모든 산 詩의 現實속에서는, 그것은 얼마나 不便한 것이냐? 그래서 벌써 音樂은 우리들의 벗이 아니다. …〈中略〉…二十世紀詩의 가장 革命인 變遷은 實로 그것이 音樂과 作別한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³⁶⁾

金起林이 詩의 繪畫性과 함께 또 한가지 강조했던 것은 感傷性的의 克服이다. 그의 모더니즘 詩論은 이 두개의 수레바퀴 위에 進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文章들은 이러한 그의 文學觀을 가장 克明하게 要約해 준 좋은 본보기가 될 줄 믿는다.

35) 金起林, 「氣象圖」(彰文社 1936. 7) p. 10

36) 金起林 「詩의 繪畫性」(「詩論」, 白楊堂, 1947. p. 148)

① 나는 機會있을 적마다 센티멘탈리즘에 대하여 抗爭하려 했고 나 自身 속에서도 때때로 머리를 추어돌리고 하는 센티멘탈리즘을 清算하는 데 必死의 努力을 바쳐 왔다. 센티멘탈리즘은 藝術을 否定하는 한 개의 虛無다.³⁷⁾

② 嘆息, 그것은 紳士와 淑女들의 午後의 禮儀가 아니고 무엇이나? 秘密, 어찌면 그렇게도 粉바른 할머니인 十九世紀的 비이너쓰나? 너는 그것들에게서 지금도 곰팡이 냄새를 맡지 못 하느냐? 그 肥滿하고 魯鈍한 午後의 禮儀 대신에 놀라운 午前의 生理에 대하여 驚嘆한 일은 없느냐, 그 건강한 아침의 體格을 부러워해 본 일은 없느냐?³⁸⁾

과거의 限目으로 볼 때 金起林의 詩論은 상당히 嶄新感을 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보면 두수한 誤謬로 덮여 있다. 이를테면 現代詩의 핵심이 詩의 音樂性에서 繪畫性으로 移行되었다는 말은 이미 古典의 한 常識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音樂性的 死滅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詩가 全的으로 音樂性을 떠날 때 그 作品은 無意味한 散文의 破片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詩論을 實現시키려고 했던 그의 作品들 또한 同一한 限界에 놓여져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가 결과적으로 아무리 큰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의 意圖는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要素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며, 따라서 그는 선구자적 비애와 함께 영광을 한 몸에 共有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3. 李箱의 경우

外國詩의 영향관계를 더듬어 볼 때 鄭芝溶이 T.E층의 한 끝에 닿아 있다면 金起林은 T.S엘리어트의 또 다른 한 끝에 닿아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假說이 可能하다면, 이 두 詩人은 英美系統의 모더니즘詩運動을 한국에 수입, 시도한 두 개의 對稱點을 이룬다. 反面, 李箱은 프랑스 系統의 모더니즘詩運動을 이 땅에 수입한 또 하나의 對稱點을 이룬다. 이런 點에서 모더니즘詩運動의 溫床을 이룬 九人會의 詩의 傾向은 위의 詩人으로 代表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위의 3詩人이 全體적으로 보면 각각 相異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部分的으로는 그들 사이에 어떤 共通因數가 놓여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李箱의 詩作品이 처음으로 文字化된 것은 1931年「朝鮮과 建築」에 실린 日文詩「異常의 可逆反應」이다. 그러나 그가 정식으로 文壇에 데뷔한 것은 鄭芝溶에 의해 1933年「카톨릭青年」誌에다가 「一九三三·六·一」(「카톨릭青年」, 1933.3), 「꽃나무」(同上) 등 一連의 作品을 발표하면서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우리는 여기서 鄭芝溶과 李箱의 관계를 잠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鄭芝溶은 箱의 첫 發見者일 뿐만 아니라, 九人會에 加入시키는 한편 李泰俊을 통해 詩「鳥瞰圖」를 朝鮮中央日報에 連載케 한 中介者이기도 하다.³⁹⁾ 그러면

37) 金起林, 「一九三三年 詩壇의 回顧」, (「詩論」, 白楊堂, 1947, p. 81)

38) 金起林, 「太陽의 風俗」(學藝社, 1934) p. 45

39) 趙容萬, 「나의 九人會時代」(大韓日報 1969. 10. 2)

전히 詩世界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의 두 詩人 사이에는 어떤 共通因數가 介在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을 하나의 바운다리 속에 묶고 있는 것은 카프派에 對抗해서 文學다운 文學 즉, 純粹文學을 옹호하고 그 基礎를 確固하게 다지려고 했던 이 系列의 藝術的 意慾과 情熱이 무엇보다도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問題를 좀 擴大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뒤에 純粹詩 批判으로 技巧主義論爭의 불씨를 일으킨 金起林이 처음에는 鄭芝溶, 辛夕汀 등의 이미지스트 詩人들을 높이 評價했다는 點,⁴⁰⁾ 그리고 金起林 또한 이미지즘의 詩를 排擊하면서도 그 자신은 항상 그 쪽에 傾倒되고 있었다는 點,⁴¹⁾ 뿐만 아니라 그는 合理主義의 바탕 위에 生成된 主知主義詩論을 主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非合理的인 超現實主義의 한 모서리를 끈질기게 包容, 또는 強調하고 있었다는 點⁴²⁾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事情은 鄭芝溶—金起林—李箱 이외에도 李泰俊—朴泰遠—李箱—金裕貞 등의 文學的 人間的인 諸關係에서도 우리들의 推定을 可能케 한다. 그러므로 30年代 純粹文學派의 立場에서 보면 누가 이미지스트이고 누가 다다이스트이건 간에 이 땅에 새로운 意味에서의 西歐 現代文藝思潮을 移植하고 그것을 몸소 實踐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至上目標였다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30年代 文壇의 突然變異 現象으로 일컬어져 온 李箱의 文學이 어째서 純粹文學 系列의 史的 意味網을 構築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李箱의 詩는 대체로 두 時期로 區分된다. 하나는 다다이즘의 傾向을 띤 初期 詩篇들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 자리에 놓이게 되는 슈트레알리즘의 傾向의 後期 詩篇들을 가리킨다. 엄격히 말해서, 다다이즘의 輸入은 20年代 中期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우리 詩文學

40) 金起林은 기회 있을 때마다 鄭芝溶, 辛夕汀, 金光均 등의 詩를 높이 評價했는데, 그가 이 一連의 이미지스트 詩人들에게서 강조하고자 한 바는 明白하고 正確한 視覺의 이미지의 驅動力에 있었던 것 같다. 「最初의 모더니스트 鄭芝溶은 거진 天才的 敏感으로 말의 (主로) 音의 價値와 이미지 清新하고 原始的인 視覺의 이미지를 發見하였고 文明의 새 아들의 明朗한 感性을 처음으로 우리 詩에 이끌어들이었다. 辛夕汀은 幻想속에서 形容詞와 名辭의 非論理的 結合에 의하여 아름다운 象徴的인 이미지들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韻文의 리듬을 버리고 아름다운 會話를 썼다. 좀 뒤의 일이지만 視覺의 이미지의 適確한 把握과 驅使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金光均氏, 辛夕汀의 詩風을 引繼하면서 더욱 彫鑿의 깊이를 가진 張萬榮氏, 그밖에 朴載崙氏, 趙靈出氏 등등에 이르기까지 一貫한 詩風은 詩壇의 完全한 새 時代였다.」(金起林, 「詩論」, p. 76)

41) 金起林의 詩論은 T.E혼이나 E. 파운드流의 이미지즘 世界에서 탈피하여 T.S엘리어트流의 形而上的世界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그의 詩作品은 오히려 이미지즘의 限界에 묶여 있었다고 하겠다. 長詩「氣象圖」는 이런 점에서 특히 그의 限界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하겠다. 林和가 技巧主義論爭에서 金起林을 테크니션으로 보았다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42) 金起林의 모더니즘 詩論은 英美系統의 이미지즘이나 인티펙튜얼리즘은 물론 프랑스系統의 다다이즘 내지 슈트레알리즘까지도 함께 포괄하려는 폭넓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가 李箱에게 바친 敬意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장 優秀한 最後의 모더니스트 李箱은…」(「詩論」 p. 77)

史上 다다이즘 論議는 1924年 高漢容에 의해 이미 提起된 바 있었고, 43) 그후 몇 사람의 詩人을 통해 이 系列에 속하는 一連의 作品이 試圖된 바도 있었다. 44) 그렇지만 李箱의 業績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整理될 수 있다. 첫째, 20年代의 다다이즘 輸入이 아직 不完全한 것이었다고 하면 李箱은 그것을 보다 徹底하고 本格的인 樣相으로 전개시켰다는 點, 둘째, 그의 初期詩의 背景이 된 다다이즘의 傾向이 그 자리에 固定되거나 정체되지 않고 쉬르레알리즘이라는 또 하나의 詩的 次元으로 변모되었다는 點, 따라서 「三四文學」 同人들과 함께 30年代 後半期 詩壇에 쉬르레알리즘詩運動을 일으킨 하나의 始發點이 되었다는 點 등을 들 수 있다. 李箱 및 그 亞流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克服되어야 할 많은 批評的 省察과 反省의 문제점들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대로 그들이 이 무렵의 韓國 詩壇의 沈滯相을 打開하는 데 一翼을 擔當했다는 것은 큰 功績이 아닐 수 없다.

4. 李泰俊의 경우

李泰俊은 프로文學 全盛期에 등장한 作家다. 45)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러한 時代的 奔流에 말려들지 않고 항상 自己防衛의 立場을 堅持해 나아갔다. 46) 이것이 30年代 文壇에서 그

- 43) 高漢容, 「서울 왔던 다다이스트 이야기」(「開闢」52號 1924. 10)
 高杻杻, 「다다이즘」(「開闢」1924. 9)
 고사리, 「다다」(東亞日報 1924. 11. 23)
 高다다, 「잘못 안 다다」(同 1924. 12. 1)
- 44) 20年代 프로派 詩人으로서 林和나 朴八陽 등이 試圖한 바 있으나 다다이즘의 破滅的인 要素를 變의상 한때 借用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며, 本格的인 다다이즘 作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참고 삼아서 이 무렵에 쓴 그들의 작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林和…「네 街里的 順伊」(「朝鮮之光」1929. 1) 「우리 읍바와 火爐」(同 1929. 2), 「어머니」(同 1929. 4) 「雨傘밭은 요꼬 하마의 埠頭」(同 1929. 9)
 ② 朴八陽…「레모」(「朝鮮之光」1928. 7) 등
- 45) 李泰俊은 프로文學이 盛行하던 20年代 後半期에 등단했지만 빛을 보지 못 했고, 순수문학파가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1932年 이후에야 비로소 그의 力量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의 初期 作品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누이」(「文藝公論」2호, 1929. 6)
 「그림자」(「權友」창간호, 1929. 5)
 「어떤 날 새벽」(「新小說」5호, 1930. 9)
 「불도 나지 않았오」(「東光」23호, 1931. 7)
 「不遇先生」(「三千里」25호, 1932. 4)
 「참새 生覺」(「藝星」11호, 1932. 2) 등
- 46) 「이에 우리는 그들의 작품속에서 심각한 사상적 동요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強烈한 表現의 努力은 그들의 觀照의 感傷과 世態의 觀察과 칼날같은 感覺을 形象化하는 데 成功했다. 이리하여 그들의 作品은 그것만으로 한 完全한 藝術品이었으며, 그들은 그들만으로 各各 한 獨創의 作品世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오직 그들이 思想보다도 表現에 더 置重하기는 했으나, 이에는 主義的 奔流에 대한 自己防衛의 反動도 多少 있었으리라. (金煥泰, 「純粹是非」, 「文章」1939. 11, p. 146)

를 純粹文學系列의 代表的인 作家로 굳히하게 한 가장 큰 原因 중의 하나다. 그는 다음과 같은 回顧文을 통해 자신의 文學的 遍歷을 솔직하게 告白한 일이 있다.

「五夢女」即後에 나는 思想問題에 얼마쯤 苦悶하였다. 루나찰스키의 藝術論을 도저히 理解할 수가 없었고 理解하려면 할수록 反感만 커 갔다. 當時 周圍의 文學青年이란 舉皆 루나찰스키의 信徒들이었다. 나는 의로운 나머지 畫家인 金瑢俊, 金周經 및 친구의 正統藝術派란 旗下에 뛰어 들기까지 하였다. 이 正統藝術派의 藝術論은 左翼天下였던 朝鮮의 各新聞雜誌에서 의례 默殺될 것은 定한 理致였다. 異邦人과 같은 孤獨이었으나 이제 와 돌아 보면 수긋하고 내 信念으로만 살 수 있었음은 多幸한 일이다. 47)

그는 한 번도 카프派와 正面으로 對決한 적은 없다. 九人會의 形成過程을 살피는 자리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作家에게는 作品이 있을 뿐이라는 그의 態度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理論的인 體系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그의 氣質과도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이동안에 제작한 龐大한 量의 作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입장을 固守하여 왔으며 그가 말하는 루나찰스키의 藝術論 즉 프로文學과는 전혀 相反하는 자리에서 「純粹」의 意志를 다져 온 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문학적 특질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側面에서 接近할 수 있다. 첫째는, 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純粹」의 正體다. 그는 이에 대해 具體적으로 言及한 일이 없지만, 그의 作品世界에 나타나는 一般的인 性格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곧 「文學이 言語藝術임」을 뜻한다. 즉, 카프派가 내세운 「階級」이나 「社會主義」나 하는 文學外的 要素들을 배격하고 文學的 內的 本質的인 要素를 존중하는 態度를 가리킨다. 그가 탁월한 美文家였다는 점, 文章이란 用語를 곳곳에서 즐겨 사용했다는 점 등은 이와같은 우리들의 推定을 可能케 한다. 그러므로 그가 九人會의 領導者가 되고 이어서 鄭芝溶과 함께 「文章」誌를 背景으로 하여 30年代 後半期 文壇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그의 文學的 特性이 當代的 文學史的 要求와 그대로 一致되어 갔다는 점에서 찾을 수도 있다.

둘째는, 그의 휴머니즘的 氣質에 관한 물음이다. 그는 언제나 弱者의 편에서 있다. 그리고 무한한 同情과 憐憫의 情을 쏟는다. 이것이 프로作家와 區分되는 그의 特性이다. 前者가 集團的인 利益을 위해서는 個性을 末殺시켜 버리거나 劃一化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면 後者는 어떠한 狀況 속에서도 그 個性을 존중하고 동정하려는 作家의 態度를 통해서 따뜻한 人間味를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그는 리버럴리스트다. 이러한 作家의 態度는 作中人物들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그의 作品에 등장하는 人物들은 한결같이 敗北者라는 점에서 共通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한때는 찬란한 과거가 있었고 꿈이 있었건만 現實에서 落伍하여 결국 感傷的인 哀愁과 회의에 잠기는 「不遇先生」이나 「寧越令監」과 같은 人物들은 모두 그러한 敗北者의 典型을 形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作家가 항상 「나」라는 관찰자의 觀點을 빌어

47) 「小說의 어려움 이제 깨닫는듯」(「文章」13호, 1940.2, p. 20)

그러한 패배자들에게 無限한 同情을 바치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 作家의 文學精神, 또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人生觀의 一面을 發見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은 무엇인가 중대한 물음을 빠뜨리는 것 같은 아쉬움을 준다. 그것이 무엇인가, 李泰俊의 경우, 패배자들에 대한 그의 人間的인 同情이 보다 堅固한 思想的인 體系나 創造의 方法論과 直結되지 못하고 素朴한 形態의 心境反應에 그치고 있다는 點에 그의 作家의 限界가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30年代 末期의 純粹論議도 결코 우발적인 事件이 아님을 看過할 수 없다.

5. 朴泰遠·其他

李泰俊이 내세운 「純粹」의 旗幟아래 모여 이 땅의 小說史를 20年代의 近代的인 次元에서 現代的인 그것으로 끌어 올리는 데 공헌한 作家들로 朴泰遠과 金裕貞의 이름을 빼어 놓을 수 없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 一連의 作家들은 鄭芝溶과 金起林이 우리 詩에서 가지는 史的 位置와 同一한 軌蹟을 밟는다. 朴泰遠은 李泰俊이 누구보다도 아낀 作家중의 한 사람이다. 그를 아낀 理由는 作家로서의 銳敏한 感受性과 그것을 밑받침하는 세련된 文章力에 있다. 李泰俊의 말을 빌면,

仇甫는 누구보다도 先覺한 스타일리스트다. 그의 獨時한, 끈기 있는, 치렁치렁한 長距離 文章, 心理고 事件이고 무어든 한 번 文章에 걸리기만 하면 一絲를 가리지 못하고 赤裸하게 露出이 된다. ⁴⁸⁾

朴泰遠이 어느만큼 스타일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은 「詩와 小說」誌에 실린 短篇「芳蘭莊主人」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30여매에 달하는 이 作品은 단 하나의 文章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친 前衛意識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作品이 그러한 한 實例다. 그의 小說은 이러한 側面에서 李箱의 詩와 小說에 나타나는 어떤 部分들과 一脉相通하는 데가 있다. 九人會의 멤버 가운데서 이 두 사람처럼 가까이 지낸 사람들도 없을 것 같다. ⁴⁹⁾ 이와 같은 人間的인 친분관계는 文學的인 面에서도 모종의 동질성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같이 끊임없는 實驗과 모색의 作家였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朴泰遠이 現代的인 都市感覺에 뛰어난 作家였다고 한다면 金裕貞은 農村의 순박한 人間像을 諧謔的인 筆致로 묘사하는 데 뛰어난 솜씨를 보여 준 作家다. 金裕貞의 小說에 등장하는 人物들은 한결같이 好意와 同情을 사게 한다. 그것은, 그들이 素朴한 性格의 所有者라는 데

48) 金字鍾, 「韓國現代小說史」(宣明文化社 1973. 10) p.275再引

49) 「朴泰遠과 李箱은 언제부터 서로 알았는지 形影相隨로 밤낮 같이 붙어다니면서...」(趙容萬, 「나와 九人會 時代」, 大韓日報 1968. 10. 2)

에 있다. 이러한 作中人物들은 李泰俊의 敗北의 人間像들과도 어떤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다같이 歷史의 현장에서 소외된 變두리의 人物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의 선량함으로 말미암아 주변환경으로부터 항상 피해를 받는 쪽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때 九人會에 加入한 바 있었지만 곧 脫退해 버린 李孝石도 30年代 純粹作壇에 군림했던 代表的인 作家중의 한 사람이다. 위에 든 一連의 作家들과는 달리 처음에는 同伴作家로 출발했으나 九人會가 結成된 1933年을 前後해서 轉向하고 純粹文學의 基地確保에 팔목할만한 業績을 남겼다는 點에서 李無影과 같은 軌蹟을 밟고 있다. 이 밖에도 朴八陽과 金尙鎔의 두 詩人이 있다. 朴八陽은 卡프出身이며, 金尙鎔은 처음부터 純粹文學 系列에서 출발된 詩人이다. 그렇지만, 朴八陽도 九人會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 무렵에는 이미 純粹文學의 立場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의 九人會 加入도 이런 점에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轉向以後 거의 침묵을 지켰다. 金尙鎔은 九人會에 加入한 以後에도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지만 作品으로서는 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 「詩와 小說」誌에 발표된 作品「눈오는 아침」과 「물고기 하나」도 그런 점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九人會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寄稿者로서 「詩와 小說」誌에 두 篇의 作品을 발표한 바있는 白石의 詩篇들이 오히려 더 많은 成果를 거두고 있다. 自稱「藝術至上主義者」라고 宣言했던 金煥泰의 批評活動도 金起林의 그것과 함께 넓은 意味에서 轉形期批評의 한 軸을 形成한다. 특히, 그들은 장르上에서 볼 때 주로 詩論을 썼다는 점, 文學의 藝術性을 강조하던서도 이미 지극적인 純粹詩의 世界보다 形而上의인 詩의 世界에 더 많이 기울어져 갔다는 점에서 兩者의 類似性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九人會는 批評보다는 創作, 그것도 詩과 小說의 두 分野에 比重을 둔 모임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批評은 創作을 위한 理論的인 뒷받침이나 辯護의 役割을 맡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詩와 小說」誌의 編輯方向에도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는 金起林의 잘마한 評文, 그나마도 詩作을 접한 批評家의 告白的인 文章이 한 篇 실려있을 뿐이다. 九人會의 이러한 創作爲主의 態度는 이 모임을 콘트롤했던 李泰俊의 氣質的인 側面과도 깊은 關連을 맺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文學史의 位置

앞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30年代 前半期의 韓國文壇은 카프派와 民族派 및 純粹文學派로 區分되는 3流派間에 있어서의 對決의 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民族派와 純粹文學派는 正面으로 부딪친 일이 별로 없다. 오히려 相互補足的인 關係를 맺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듯하다. 그것은 在來의 民族派는 물론 海外文學派까지도 서서히 純粹文學派 속에 溶解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30年代 純粹文學運動의 基礎를 確立하는 데 前期的 役割을 담당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純粹文學派와 正面로 對立한 것은 카프派였다. 이러한 사실은 文壇의 主導權 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것은 30年代가 카프派에서 純粹文學派로 文壇의 主導權이 移行되는 過渡期에 놓여 있었다는 점, 따라서 투쟁적인 성격을 지닌 카프派가 이러한 文壇動向을 銳意注視하면서 反對派에 대해 集中攻擊을 加해 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九人會는 30年代 純粹文學運動을 主導했던 代表的인 文學集團의 하나다. 그렇다면 그들에 對한 카프派의 是非는 지극히 自然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 九人會 會員들이 文壇의 主流를 形成하고 우리 文學史에 劃期的인 業績을 남겼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들의 文學史的 意義는 다음 세가지의 항목으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프로文學運動이 過多한 理論투쟁에 一貫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作品上의 實踐이 不足했음에 反해, 純粹文學派를 代辦한 九人會 會員들은 자신의 文學的 理念을 具體的인 作品을 통해 實現시킴으로써 韓國文學의 質的向上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우리 文學史上 처음으로 作品다운 作品이 生産된 時期라고 하겠다.

둘째, 九人會는 純粹文學運動을 전개시킨 가장 核心的인 勢力이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同一한 系列에 속하는 文學集團으로 詩文學派와 海外文學派를 들 수 있다. 그런데, 前者는 하나의 始發點을 제공했을 뿐 그 이상의 전개 능력을 갖지 못했으며, 後者는 理論的인 面으로 카프派와 對決함으로써 우리 文學의 좌표설정 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실제 作品으로 具現시킬 能力이 갖추어 있지 못했다. 그렇다면, 九人會는 「詩文學派에 의해 誘導된 文學의 方向을 繼承하여 이를 1930年代 以後의 韓國 現代文學의 主流로서 育成 擴大시키는 同時에 이를 다음 世代에 展開시킨」⁵⁰⁾ 것이 된다. 따라서 九人會는 한편으로 詩文學派의 文學의 方向을 계승하고 한 편으로는 海外文學派의 理論的인 支援射擊을 받으면서 30年代 純粹文學運動의 溫床이 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九人會는 西歐의 現代文藝思潮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20年代의 近代文學의 性格을 30年代의 現代文學의 性格으로 끌어 올리는 데 決定的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⁵¹⁾ 이것은 九人會 會員들이 強烈的한 文學的 情열과 意慾, 그리고 그것을 밀받침하는 實驗意識 및 探究意識의 所有者임을 뜻한다. 年代의 으로 보면 海外文學派보다 훨씬 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 비로소 西歐의 現代文藝思潮가 輸入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새로운 文學的 感受性을 갖고 있었으며 아울러서 外國文學의 영향에 민감한 反應을 일으키고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된다.

50)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入間社, 1961) p. 691.

51) 同上 p. 692.

以上으로써 우리는 九人會의 文學史的 意義를 대충 살펴 보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前項에서 수시로 지적한 바와 같이 思想의 빈곤과 自己時代에 대한 歷史的인 洞察力의 缺如로 植民地文學의 限界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들에 대한 最後의 評價는 오늘의 文學史家들에게 있어 아직도 몇 개의 留保事項으로 强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Summary —

A Study of Kuinhoe

by Kim Si-tae

Since the rise of the modern literary movement, various kinds of literary groups were formed in Korea. Among them, the "Kuinhoe" played most important roles. Its historical meaning to modern Korean literature is summarized in three aspects.

1. The literary works really worthy of the name were written by members of the group and the first systematic theories, were founded by them. Modern Korean literature of earlier days was, it might be said, limited to the accumulation of data. In contrast with the past situation, the group's activities revealed that modern Korean literature acquired some system of value.

2.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group who started their literary movement with the anti-these of pro-literature in the last years of the 1920's, by taking the initiative in the literary area of the 1930's, made an epoch-making point by which modern Korean literature was changed from pro-literature to pure literature.

3. They save a decisional turning point to Korean literature which was based on pre-modern dimensions, by receiving the modern western literary tendency. Through this turning point, Korean literature found a modern literary dimension.

Beside these, the historical meaning of "Kuinhoe", by the personal achievements of members of the group was more increased.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Kuinhoe" have a more various literary knowledge and higher vision than the members of the other groups formed before the "Kuinhoe". Therefore,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Kuinhoe" is very important.

But the result of study about the "Kuinhoe" is limited to partial comments and evaluations of it. Accordingly, in this study, I will first point out the following the formation group, the literary area's reaction to the group, personal literary achievements of the members and their literary stature in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literature. Secondly, I would like to reexamine the literary activities of the members as in depth as I can view them in their general aspects.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will be a guide line of understanding of not only a literary group but also of the literature of the 1930's which formed it.